



모란봉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

◆저작권과 사회문화발전◆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문학에 창작품을 내놓는 진문으로 하는 창작자들을 머리에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동무들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찍는 사진이라든가 일기나 추후시 같은것은 물론 유치원이든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성별과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작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소설, 음악, 극대본을 창작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목소리와 행동, 말, 행동 등을 통한 연기형상으로 대중이 실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수, 무용수, 영화배우들은 물론 외국소설이나 영화대사를 번역한 사람들도 저작권법으로 인정해준다. 지어 배우의 노래와 춤 등을 녹음, 녹화한 자기레오, CD를 제작하거나 유선 및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방송해주는 사람까지도 저작권법으로 되어 해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과학, 교육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되는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저작물에는 그 표현형식에 따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이 속한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자자료기, 다매체 편집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및 인격적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본질에 있어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리용하는것을 금지시킬수 있는 배타적지권이다. 저작물의 리용방법에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의 이러한 리용을 금지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조건을 준수하면서 리용하도록 허가해줄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저작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자기의 저작물을 공개하든가 말든가를 결정하는 자유와, 저작물에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든가 말든가를 결정하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을 남들이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상속되거나 양도될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사망후에도 계속 보호된다.

가치있는 지적창조물을 집필, 창작한 저작자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하는것과 함께 창작된 저작물들의 원활한 리용을 통하여 사회적진보와 문화발전을 추동하는 것, 이것이 저작권보호제도의 근본목적이며 그를 통하여 저작자와 사회의 전반적 리익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저작권보호제도의 기본원리이다.

대동강송어국

공화국의 비물질문화유산들 가운데는 대동강송어국이 있다. 이 음식은 대동강의 송어를 삶은 평양의 유명한 특산물이다. 송어는 평양 대동강송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평양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평양의 명물로 자랑하는 송어국을 대접하는 것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후회 받지 않는 습관이다. 송어는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꺼낸 다음 4cm정도 크기로 토막낸다. 남비에 찬물과 송어를 안치고 후추알을 약천에 차서

냉고 같이 끓인다.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송어토막이 익고 국물에 누런 기름이 뜨면 후추알을 쌀 약천을 꺼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송어토막과 국물을 담아낸다. 다진 마늘과 생강을 곁들여낸다.



6. 첫물뜯기
첫물뜯기에는 유익한 유기산과 섬유소, 펙틴, 알카로이드, 카로틴, 비타민 B, C, 철, 칼슘, 코발트, 린, 망간이 들어있다. 딸기는 빈혈증과 분류성동맥경화증, 당뇨병, 생식기질병, 위염, 대장염, 천식, 물집대상포진의 치료에 쓰인다.

7. 칠색송어
칠색송어에는 유용물질과 미량원소 그리고 비타민 A와 B, E, D, PP, 셀렌, 린, 요오드, 리진, 나트륨, 칼륨, 칼슘이 들어있다. 의사들은 콜레스테롤수치를 정상화하고 신경계통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칠색송어를 먹을 것을

원시동굴유적을 새로 발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연구집단이 평양시 강동군 향무리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차례로 겹놓인 원시동굴유적을 새로 발굴하였다. 지난 시기 강동일대에서는 국가형성의 사회력사적전제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번 발굴한 동굴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문화층(4층, 5층)에서 석기 16점과 칠그릇조각 40점을, 청동기시대 문화층(7층)에서 칠그릇조각 12점이 나왔다. 연구집단은 유물들을 전자상자성공명단층촬영법(ESR)과 열형광단층촬영법(TL)으로 측정하고 석기의 종류와

재료, 제작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구석기시대 문화층의 년대가 3만 6 000~3만 4 000년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 조선옛 류형사람이 대동강구역에서 발굴된 승리산사람(영안남도 덕천지 승리산유적)과 룡곡사람(황해북도 상원군 룡곡제1호동굴유적)과 같이 구석기시대의 신인이 그 뿌리를 두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문화있는 강동일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뿐 아니라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태를 묻고 살아온 유구한 고장이며 현대조선사람의 뿌리가 내린 지역의 하나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평양시 강동군 향무리 자연동굴유적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관계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와 생산활동,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다 풍부한 자료들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자못 의의가 크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5월에 좋은 건강식품 (2)

9. 닭고기
닭고기에는 비타민B군과 A, C, E, PP, 단백질, 칼륨, 칼, 아연, 칼리움, 린과 같은 유익한 물질이 들어있다. 닭고기를 정성적으로 먹으면 심장혈관 및 소화기, 신경계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10. 박하
박하는 혈관확장 및 진통, 안정, 항염증작용을 한다. 소화기능장애와 부인병 및 천식, 염주치료를 박하를 쓴다. 박하차는 강장작용을 하여 심장기능을 개선하고 열병 및 감기치료에도움을 줄뿐아니라 화상 및 딸꾹질, 머리아픔, 메스꺼움, 멀미를 치료하는데도 좋다.

본사기자

사화

우연한 기적 (1)

글 권영희, 그림 채대성

김진사는 그동안 몇해째 아버지의 혼담이 이상한 소문으로 해서 뒷말만들며 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아마도 내 대에 결혼(자신의 대가 끊어지는것이) 되니바다》라고 한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이번엔 뜻밖에 혼담이 수월히 되어 잔치날까지 받아놓았다. 이제는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출것이고 또 잔치준비를 한다고 안팎으로 들러달라 돌아치러는데 웬 일인지 그는 요즈음 방안에 꼭 들어박혀 밖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 경환은 더없이 소중한 외아들이라 그야말로 귀중한 꺼질까, 불면 날가 애지중지 키웠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까닭없이 눈썹이 빠진다고 하더니 석정한 목소리라고 해서 소리가 난다. 몸이 별레가 기는 듯하다고 연해 이상한 소리만 하였다. 요즈음은 얼굴빛이 검붉어지고 발발 혹은 대추씨만큼한 현대가 무수히 나와 흥취하기가 이를테려졌다. 김진사는 천석군이란 말을 들어오나 천석은 채 못되고 수백석은 실히 되는지라 대

목에 눈을 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쇠여있었다. 대동창 혹은 천형병이라고도 한다. 대동창은 사백배가 지나 된다. 이 병은 총(균)에 의해 생기며 총이 간을 침범하면 눈썹이 빠지고 폐에 침범하면 코가 내려앉고 비강을 침범하면 음식이 갈리며 신장을 침범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살이 찢뚫해지고 무감각하며 얼굴에 발달 혹은 대추씨만큼한 현대가 무수히 나니 보기 매우 흉하니라. 여러가지 읽어내려가는 동안 김진사는 몇번이나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 역시 경환의 병은 문둥병이었다 말인가...) 김진사는 풀이 죽어 의원에 게 애원하듯 말했다. 《의원이르, 저자식이 죽으면 우리 집은 대가 끊어지고마오. 어떻게든 꼭 좀 살려주시오. 저 얼굴의 현대라 두 주 없애주시오.》 의원은 잠시 생각을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더러 낫기도 한다라고 씌어있으니 어디 약을 써보십시오.》 그는 곧 약방문을 쏘내려 갔다. 의원은 붓을 놓고 다 쓴 약방문을 김진사에게 주며 《여하든 몇번 써보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난처한 듯이 잠깐 서성거리다가 돌

아갔다. 김진사는 의원의 말이 애매하고 약방문도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자기가 직접 약을 구하여 손수 환을 지었으며 그렇게 만든 약을 정성껏 먹으며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고 점점 더해만 갔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장가들어 절손을 면하자던 김진사의 생각이 이제는 거의 절망적이었다. 김진사는 이 후 혼을 받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하며 곧 사주단자를 보내면서 처녀집식구들의 환심을 사느라 고 작지 않은 돈과 천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서로 선을 보는 일도 없이 잔치날을 정해버렸다. 김진사는 다시 연기가 어려운 절호의 기회를 놓칠까와 별별 별었다. 그는 어른어른하다가 신부집에 아버지의 소문이 들어가서 혼사가 또 틀어지거나 하면 어쩌라설마 부랴부랴 서둘러 혼인날까지 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 혼인을 하면 잔치에 드는 비용은 이편에서 다 담당할 것이고 또 처녀집이 가난하면 땅까지도 마련해주어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알리면서 하였다. (물론 아버지의 병은 말하지 않고 하였다.) 처녀의 집에서는 신랑집이 집안도 괜찮고 또 천석군이 라는 말에 혹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딸을 주기로 하였다. 김진사는 이 후 혼을 받고

《의욕실》과 《봉산칼춤》

봉산탈춤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봉산지방에서 전해오는 《리유록설》이다. 비현한 음모로 고려왕조를 뒤엎고 왕권을 탈취한 이성계일파를 반대하여 세상을 등지고 두문동에 들어간 72명의 고종충신들은 복잡한 나라의 정치정세를 안정시키고 온갖 악한 무리들을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요사스러운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것을 맞이한다》는 뜻이 담긴 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탈을 가지고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귀신몰이》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고려충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한 사람이 탈을 가지고 《귀신몰이》를 하면서 비밀리에 전국을 순회하게 되었는데 남쪽지방을 전부 돌고 북쪽으로 올라가던 도중 봉산에 틀리게 되었다. 당시 봉산군수로 있던 리유록과 매우 가까운 사이었던 그는 대화과정에 자기가 하고있는 《귀신몰이》의 내막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봉산군수는 지금 나라의 정세가 복잡할데 그런 일을 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면서 탈을 자기에게 맡겨두고 빨리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다. 잠시 생각하고난 그는 군수의 권고대로 탈을 맡기고 떠나갔다. 고려를 망하게 한 이성계 일파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던 봉산군수는 그 탈을 소중히 간직해두었다가 나라의 정세가 점차 안정되자 봉산관가의 아전들에게 탈을 가지고 탈놀이를 벌리게 하였다. 그 때로부터 봉산지방에서 탈놀이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리유록설》을 통하여 봉산탈춤은 고려말, 조선봉건왕조 초기의 역사적정승속에서 유래된 이후 오랜 세월 전승되어오는 과정에 자기의 뚜렷한 면모를 갖추고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봉산탈춤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리영호

《말 못 탈》 녀석

한 량반이 생소한 시골 길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소말이군소년에게 길을 잃었다. 《애야, 이 길어 어디로 가는 길이야?》 《글쎄요, 나는 이 길어 어디로 가는지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늘 함께 있었으니깐요.》 《음까지 가자면 얼마나 가야 하느냐?》 《글쎄요, 재분적이 없어요.》 부아가 난 량반은 아이를 질책하였다. 《그놈 정 말 못할 녀석 이로구나.》 《말을 못 타니까 이렇게 소를 타고 다니지요.》 말문이 막힌 량반은 하는 수없이 제갈길을 가버렸다.

가야 하느냐?》 《글쎄요, 재분적이 없어요.》 부아가 난 량반은 아이를 질책하였다. 《그놈 정 말 못할 녀석 이로구나.》 《말을 못 타니까 이렇게 소를 타고 다니지요.》 말문이 막힌 량반은 하는 수없이 제갈길을 가버렸다.